

담양군, 농가 생산비 절감 '농기계임대' 활성화

임대료 50% 감면 연말까지 연장 '농가 경영비 절감' 영세농 지원 4억원 투입해 농기계 추가 확보 순회 수리 봉사반 연 2회 운영

담양군이 이상기온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보전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에 나섰다.

14일 담양군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임대료 감면 정책을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에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지자체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 1억여원의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두며 영세농에게 큰 도움이 됐다.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 및 지난해 4월

개소한 서부지소의 농기계 추가 확보를 위해 약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트랙터를 포함한 26종 46대를 구매, 원활한 임대를 추진코자 한다.

아울러 농한기를 이용해 농기계임대사업소 회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소형건설기계(농용굴삭기·지게차 등) 면허와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며 농기계지원팀 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기계 안전 전문관 역량 강화 교육도 지속 추진한다.

오지마을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도 연 2회 운영해 현장 고장진단 및 점검 지원,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농기계 필요

한 농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임대 서비스 및 영세농, 고령인을 위한 영농 대행 등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영광군, 2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

영광군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보상을 위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오는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면서 농림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다.

다만 해당 기간 중 경영체 취소 또는 변경 이력이 있거나 타 지자체로의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지난 2023년도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2023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전년도 농지법·산지관리법·가족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수급자는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영광군은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공익수당 60만원 전액을 영광사랑카드 지화화폐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정책수당으로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영광사랑카드와 달리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곡성군, 16일부터 17일까지

곡성군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인 삼기면 5개 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를 현대 측량 기술로 재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군은 지적불부합 토지를 정확히 조사 측정하고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 추진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 이후에 토지소유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면밀한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며 참석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별도의 우편을 통지해 해당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삼기 괴소·정계·농소·수산·근촌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1236필지 총 45만6013㎡다.

설명회는 삼기면 각 마을회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6일에는 연봉 마을회관, 괴소 2구 마을회관, 농소 마을회관, 근촌 마을회관에서 진행되며 17일에는 수산1구 마을회관, 수산2구 마을회관, 정계 마을회관, 봉현 마을회관에서 진행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및 토지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장성 황룡시장에서 군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장성군은 서삼·북일·북이·북하면 주민들의 황룡시장 이용을 돕기 위해 14일부터 농촌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황룡시장 농촌버스' 시범 운행

북부권 주민 대상

장성군이 서삼·북일·북이·북하면 주민들의 황룡시장 이용을 돕기 위해 14일부터 농촌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가운데 하나인 황룡시장은 읍시가지와 황룡강, 장성공영버스터미널, 장성역 인근에 위치해 지역민과 방문객 이용이 활발한 곳이다.

특히 장성군은 올해 개원 예정인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와 함께 황룡시

장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체전·전남장애인체전 개최에 맞물려 추진되는 '장성 방문의 해'를 통한 상승효과도 예상된다.

이처럼 황룡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앞두고 있지만, 장성 북부권 주민들의 접근성이 약하다는 부분은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장성군은 황룡시장 장난인 매월 4일과 9일마다 농촌버스를 시범 운행하기로 했다.

버스는 4일과 9일 오전 8시부터 9시까

지 북부권 중점에서 출발해 황룡시장 방향으로 향한다.

터미널 이용 승객은 장성역 인근 할머니장터에서 하차하거나 황룡시장을 지나 터미널로 되돌아올 때 내리면 된다.

버스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농촌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교통에너지과(061-390-7367)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기노선 포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영광군, 공동주택 시설개선 비용 지원

도로·가로등 등 공용부분

영광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는 공동주택 중 5년 내 보조금 지원 실적 없는 곳을 대상으로 공용

부분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범위는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설치·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옥상방수 등 공사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나머지 비용 입주민 부

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는 오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40개소의 공동주택을 지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영광군,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

영광군이 2025년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4일 영광군에 따르면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능력 개발을 지원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미취업 청년에서 모든 청년으로 확대해 취업 및 업무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회까지 지원되며,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청년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상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며 영광군 청년센터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분야는 어학 21종,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8종 등이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 대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모든 청년으로 사업 대상을 넓혀 시행하는 만큼 취업 준비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업무역량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